

하루를 시작하며



노미경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제주지부

뱀 이야기와 스토리텔링화한 문화콘텐츠

올해는 흑사(黑蛇), 검은 뱀의 해로 뱀 중에서도 영물(靈物)로 발전과 번영의 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뱀에 대한 해석 또한 다르다. 뱀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지 않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되살아나는 신비하고 영원한 생명의 동물이라는 의미로 믿기도 한다. 이는 재생의 힘, 다시 말해 의술로도 상징하기도 했으며 반면 그 차가운 눈과 독으로 인해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슬람교의 전설에 따르면 원래 뱀은 낙타와 비슷한 다리가 있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

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악마 이블리스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악마의 부탁으로 그를 입 속에 넣고 에덴동산에 들어감을 빌어 받아 지금처럼 온몸을 움직여 기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신화가 전해온다. 이 세상 처음에 불사의 영액(靈液)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뱀이 훔쳐 먹어 낙원 상실, 즉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낙원에 쫓겨났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까? 동양에서는 큰 뱀이나 이루기는 어떤 저주로 인해 용이 돼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동양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뱀에게 처녀를 바치는 행위라든지 신성시하는 행위는 용에 대한 희생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김녕사굴의 거대한 뱀 이야기도 이와 상통될 수 있다. 판관 서련이나 영천 목사는 제주 백성을 위해서 큰 뱀을 죽이지만 결국은 뱀의 혼령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했다고 전해온다. 이것은 뱀을 신봉하는 제주

사람의 신앙 체계로 뱀이 재물과 소원을 들어주는 칠성의 의미로 각 집마다 다 신적인 존재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생활 속 다른 문화로 찾아오고 있다. 뱀을 사육하며 반려동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야기, 아마존강 깊은 늪 속에 서식하는, 상상도 못하는 크기의 아나콘다를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 사람이 되고 싶어 혼령으로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 등은 영화 속에서 뱀 이야기로 새롭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 1994년에 제작된 '아나콘다'는 아마존강 늪에서 서식하며 사는 뱀이다. 전설 속의 희귀한 식물인 영생란 즉 혈란초(Blood orchid)를 먹고 강한 힘을 갖고 장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배고프다. 본래 아나콘다는 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종족번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삼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다. 혈란초를 놓고 벌이는 뱀과 사투(死鬪)다. 중국 4대 민간전설의 하나로 내려오

는 백사전전설(白蛇傳傳説)이 영화로 최근 스토리텔링됐다. 황저우(黃州) 서호를 배경으로 수련을 통해 여인이 된 백사와 평범한 사내와의 사랑이야기로 백사는 법사로 하여금 뇌봉탑에 가둬져 더 이상 인간세상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매일같이 뇌봉탑을 지키며 혼령을 위로하는 애절한 스토리이다.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주변 관광지까지 활성화해 중국의 무위자연 철학사상을 말없이 강조하고, 불교문화와 인간 우선이라는 세계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의 뱀 신화는 뒤떨어짐이 없다. 다만 어떠한 콘셉트로 제주의 스토리를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독 뱀이 아닌 우리에게 친근한 십이지간(十二之干)을 통한 동물에 대한 설화 스토리텔링 연구도 필요하다. 자연과 가장 가깝고 신들의 고향인 제주를 가장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최고의 문화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4·3 추념일 제정' 公約 꼭 지켜야

박근혜 새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1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4·3영령(英靈)들을 추모했다. 이날 방문은 제주에서 개최된 대선(大選)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계기로 이뤄졌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와 경선후보 등이 대거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주4·3은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이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제주4·3 국가추념일 제정'을 공약(公約)으로 발표했다. 4·3사건이 발생한 지 65주년이 되는 올해 제주도민들이 추념일(追念日) 제정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사실 4·3추념일 제정은 늦어도 아주 늦었다. 지난 1980년 발생한 '5·18광주항쟁'이 17년 뒤인 1997년 4월에 이미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번만큼은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의 '해묵은 숙원(宿願)'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제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다. 전문위원실은 "제주4·3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민족분단(民族分斷)이 끊고 온 비극적 사건들을 대표한다는 상징성과 4·3이 주는 교훈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4·3추념일 제정은 잘못된 과거, 즉 '역사와의 화해(和解)'에 다른 아니다. 오는 4월의 '4·3 65주기' 추모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추념일 제정을 공식 발표하게 되기를 확신하고 기대한다. 또한 아직도 미진한 4·3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및 유족들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기울여 주길 주문한다. 그것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자, 박 당선인이 누누이 강조했던 국민대통합(國民大統合)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SNS, 독자와 만나다

Facebook /hallailbo Twitter @hallailbo



●Jiheon Pae@zizekuun 한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양반들에게 택시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는 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기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하나같이 택시업자들만 배불리고 기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전호@bjh5910 자주국방 없는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보장 없다. 정래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위협국은 중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념을 앞세운 억지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반대 세력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주에 해군기지 하나도 마음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금사탕@saltcandy 방금 #강정 마을회에서 온 문자 "오늘 중단했던 해군기지공사가 야간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니 지금바로 강정천으로 나와주세요." 국회의원을, 시민단체를 돌아가자마자 스멜스멜 기어나오는 경찰들, 응역들, 공사 관계자들 얼마나 치졸한가? 국책사업?



●강한식 자기 일이 아니라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어느 분야에서건 사람이 몇몇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주관광지들이 힘겹게 겨우살이를 하다가보니 먹튀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 팔렸으며, 어느 관광지 부도났대..." 마치 사실인양 4-5개의 관광지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확인된 건 하나 정도입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되는 돌담밭

제주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추진되는 등 보전·관리 및 브랜드 활용에 획기적 전기를 맞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청산도 구들장과 제주 돌담밭을 각각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 2호로 지정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수세기 동안 형성돼 온 조상의 예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 유산을 유지·보전·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로는 1만리(3927km)의 열매 가까운 길이다. 이 가운데 밭담은 2만2000km 정도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FAO가 2002년 도입한 시스템이다. FAO는 농어촌·산촌의 경관과 전통 농어업 등을 평가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 11개 국가 19곳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필리핀의 '이

푸가오 다랑이논'에는 연간 12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정도로 성시를 이룬다. 멕시코의 '치남과 농업시스템', 일본의 '이산리해(里山里海) 시스템' 따위가 '공생농법'도 유명 관광코스로서 부상하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생계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춰야 하며 ▷생태계로서 생물다양성이 높아야 한다.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경관이 수려한 토지 이용 ▷농업의 문화유산적 가치 등도 인증 기준의 하나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도군은 청산도 구들장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기 위해 몇년 전부터 준비작업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민·관·학이 함께 세미나를 갖는 등 분주하다. 반면 제주 돌담밭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全數調査)가 시급하다. 돌담 농업과의 연계성, 토지 이용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라져 가는 돌담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시작돼야 한다. 돌담을 지켜내지 못하는 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의미가 없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Hairland products. Features: '네이버에서 머리나라 검색' (Search Hairland on Naver), '제주에서 전화 주문하시면 50%할인' (50% discount on phone orders from Jeju), '탈모고민 - 머리나라' (Hair loss concern - Hairland), '제주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에 한하여 유통마진을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프리미엄급 제품 (핵심물질 HBM5%)을 판매 합니다.' (Due to production in Jeju factory, we sell premium products at factory prices for Jeju residents). Products include '삼푸형 2병 1세트' (Sampo-type 2 bottles 1 set) for ₩45,000 and '머리나라 일반형 세트' (Hairland general type set) for ₩45,000. Contact: 747-8830, Hanra Bio Medical.